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부시시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부시시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부시시

완성된 이름

부시시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부시시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머리카락이나 털 따위가 몹시 어지럽게 일어나거나 흐트러져 있는 모양. ⇒규범 표기는 '부스스'이다.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부시시후다	-	-	-
부시시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머리카락이나 털 따위가 몹시 어지럽게 일어나거나 흐트러져 있는 모양. ⇒규범 표기는 '부스스'이다.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11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5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부시시'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아래 문헌의 뜻 구분은 원자료를 따르며, 오늘날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털 따위가 몹시 어지럽게 일어나거나 흐트러져 있는 모양. ⇒규범 표기는 ‘부스스’이다.

☞ 부시시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부시시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부시시 사전 표기 요약	—	—	—	—	—	●→
부시시후다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부시시
20세기현재
- 부시시후다
19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1종

부시시



부시시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부시시’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단독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20세기부터지만, ‘부시시’가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복합어를 이루는 구성이 19세기부터 확인된다.

표기와 소리의 특징

근대 국어 시기에 ‘ㅅ, ㅈ, ㅊ’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전설 모음화에 따라 ‘부시시’는 ‘부스스’에서 바뀐 것인데 표준어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 20세기 초반에 ‘부시시’는 주로 일어나는 행동, 문을 여는 행동을 묘사하는 데 쓰이며 머리털 등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경우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많아진다.



문헌 속의 부시시

전체 용례 11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누웠거나 앉았다가 느리게 슬그머니 일어나는 모양 문헌의 뜻 · 전체 4개

20세기 부시시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부시시

출처 1908 구마검 36

용례 01

66 문헌 용례

아모 말도 못하고 석양이 다시 되도록 그디로 기다리고 있다가 그자가 부시시 니러나 두 손으로 눈을 썩썩 부뵈고 입맛을 썩썩 다시며 것읍써보지도 안이후는것을 보고.

㉮ 현대어 풀이

아무 말도 못하고 석양이 다시 되도록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가 그자가 부시시 일어나 두 손으로 눈을 썩썩 비비고 입맛을 썩썩 다시며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을 보고.

출처 1908 빈상설 90

용례 02

66 문헌 용례

승학이가 그제야 부시시 이러나서 옥희 어머니에게 절 한 번을 넘신 하며.

㉮ 현대어 풀이

승학이가 그제야 부시시 일어나서 옥희 어머니에게 절 한 번을 넘죽 하며.

출처 1911 월하가인 24

용례 03

66 문헌 용례

장 씨가 뒤를 보고 드러온 지 얼마 으니 되야 또성 어미가 부시시 이러나며.

㉮ 현대어 풀이

장씨가 뒤를 보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또성 어미가 부시시 일어나며.

출처 1923 조선일보 3월 24일 4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이날 아침에 옥희는 잠이 깨인 뒤에 침상에서 부시시 이러나 옷을 주워입고 동창 압흐로 갖가지 가서.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달이나 장지문 따위를 느리게 슬그머니 여닫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문헌의 뜻 · 전체 4개

20세기 부시시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부시시

출처 1914 금강문 64

용례 05

66 문헌 용례

마루 문이 부시시 열리며 외숙모가 드러오더니.

ㄷ ㅅ 현대어 풀이

마루 문이 부시시 열리며 외숙모가 들어오더니.

출처 1924 조선일보 11월 8일 2면

용례 06

66 문헌 용례

궁계 단친 철문(鐵門)이 부시시 열리면서 아모 표정 업는 문파수의 얼굴이 나온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5 조선일보 11월 30일 3면

용례 07

66 문헌 용례

사람의 발자취 소리가 들리며 부시시 방문이 열리엿습니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7 동아일보 1월 25일 3면

용례 08

66 문헌 용례

가슴을 두군거리며 안으로 드러가서 방문을 부시시 열었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나 털 따위가 몹시 어지럽게 일어나거나 흐트러져 있는 모양문헌의 뜻 · 전체 1개

20세기 부시시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출처 1932 조선일보 4월 29일 5면

용례 09

66 문헌 용례

이때에 복희의 아버지는 부시시 이러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따위가 어지럽게 흩어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문헌의 뜻 · 전체 2개

19세기 부시시하다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부시시하다

출처 1880 한불사전 348

용례 10

66 문헌 용례

부시시하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부시시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부시시

출처 1925 조선일보 11월 12일 3면

용례 11

66 문헌 용례

또 건강하고 조흔 나뭇가 나아부친 잠란은 붓기를 잘 붓흔 관계로 잠란지(蠶卵紙)로부터 부시시 써러지는 일이 업는 것이니 전혀 와르르하게 써러지는 것은 쏘한 조치 못한 것이라 합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부시시의 보충 설명

《조선어사전》(문세영, 1938)부터 표준어로는 ‘부스스’가 선택되었다. 《큰사전》(한글학회, 1957)에서 ‘부시시’를 올렸지만 ‘부스스’의 비표준어로 처리하였다. 이처럼 ‘부시시’는 비표준어가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양상이 더 복잡하다. 《한불사전》(1880)에서 이 말들과 표기가 비슷한 것을 찾으면 여러 표기가 나온다. [예1] 부수수 *Bruit de la pluie sur les feuilles*. [번역] 빗방울이 나뭇잎에 떨어질 때 나는 소리. [예2] 부슈슈하다 *N'avoir pas de consistance; n'être pas ferme(se dit surtout des gâteaux)*. [번역] 점성이 없다; 단단하지 않다(주로 떡에 대해 쓴다). [예3] 부스스 *Bruit d'un fer rougi dans l'eau*. [번역] 달군 쇠를 물에 넣을 때 나는 소리. [예4] 부시시하다 *Bruit de l'eau sur un fer rouge*. [번역] 달군 쇠에 물이 닿을 때 나는 소리. ‘부스스’와 ‘부시시하다’는 같은 뜻인데 ‘부스스’와 ‘부시시하다’로 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다. 이 ‘부스스’의 풀이가 지금 사용되는 ‘부스스’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단어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런 의미의 차이는 의성어에서 흔히 목격되는 것이기는 하다. 어쨌든 ‘부스스’와 ‘부시시’의 혼란은 19세기부터 있었음은 알 수 있고 이러한 혼란이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끼쳐 ‘부스스’가 표준어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시’가 계속 쓰인 것으로 보인다.

부시시 관련 낱말

부스스, 부스스하다



- 부스스하다형용사털이 어지럽게 일어나거나 흐트러져 단정하지 못하다.관련된 말의 뜻기
초사전에서 읽기 ㄱ

뜻풀이: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부시시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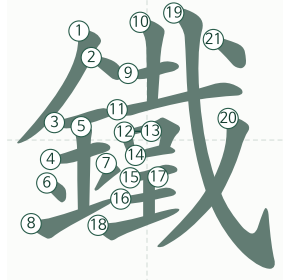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부시시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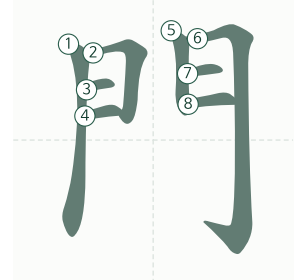
뜻·음 쇠 철
총 21획 · 부수 金



hanja.wordrow.kr/한자/鐵/

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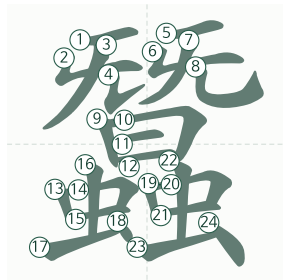
뜻·음 문 문
총 8획 · 부수 門



hanja.wordrow.kr/한자/門/

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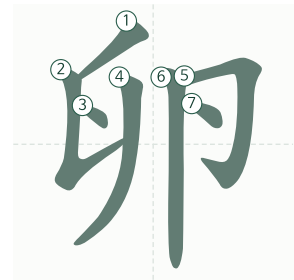
뜻·음 누에 잠
총 24획 · 부수 虫



hanja.wordrow.kr/한자/蠶/

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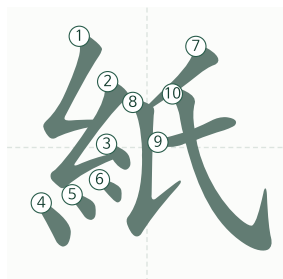
뜻·음 알란
총 7획 · 부수 冫



hanja.wordrow.kr/한자/卵/

紙

뜻·음 종이 지
총 10획 · 부수 糸



hanja.wordrow.kr/한자/紙/